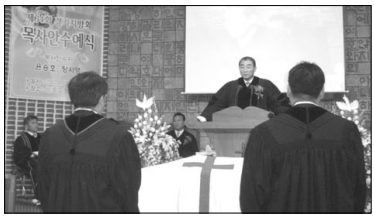


2007 목사 안수식

사명 위해 최선 다하는 일꾼 다짐

경기, 2명 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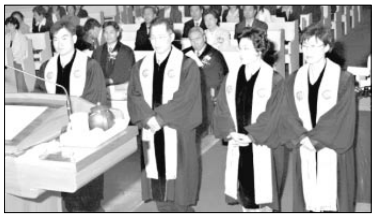
경기지방회(지방회장 이일신 목사)는 지난 4월 7일 성호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갖고 2명의 목회자에게 목사 안수례를 베풀었다.

이날 목사안수식은 지방회 관계자와 친지, 성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회 부회장 한규우 목사의 사회로 전 지방회장 이동아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이일신 목사의 설교에 이어 서약과 안수식, 축하의 시간 등으로 진행되었다.

지방회장 이일신 목사는 설교에서 "양무리를 먹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사명과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온누리에 전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수자 소개와 서약식을 가진 후 안수위원들이 운송차, 장사영 씨에게 안수례를 베풀었으며, 지방회장 이일신 목사가 교단 목사가 되었음을 공포했다.

이날 지방회 소속 목사들은 신임 목사들을 위해 축가를 부르며 그들의 목회여정을 축복했고, 한기총 대표회장 이용규 목사와 김중현 목사(신승교회 원로) 등의 축사 후 함영선 목사(성호교회 원로)의 축도로 예식을 마쳤다.

대전중앙, 4명 안수



대전중앙지방회(지방회장 이병기 목사)는 지난 4월 10일 대전교회에서 목사 안수례를 베풀었다. 이날 안수식에서는 박종욱(남대전교회), 김형남 (상산교회), 김인숙(대광교회), 이상실(선화교회) 씨 모두 4명이 목사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첫 걸음을 내딛었다.

허성도 목사(지방회 부회장)의 집례로 시작된 대전중앙지방회 목사안수식은 이영준 장로(지방회 부회장)의 기도, 지방회장 이병기 목사의 설교와 성찬예식, 안수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병기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목사가 되어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해야 하

며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순교적 자세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성만찬 예식에서는 목사안수 후보자들이 배종위원으로 섬겼으며 이어 목사 안수례가 진행됐다.

축하의 시간에는 전 국무총리 서리 장상 목사가 참석해 "주님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될 것"을 주문했으며, 김호덕(근원교회), 송대웅(남대전교회), 정형교 목사(정림교회) 등도 첫 발을 내딛는 신임 목사들을 축복했다. 또한 대전중앙동서지방 사모합창단과 대광교회 헌드벨찬양단의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서울남, 13명 안수

서울남지방 목사안수식이 지난 4월 10일 신촌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안수식은 지방회장 박관배 목사의 집례로 부회장 윤진섭 장로의 기도, 총회장 이정익 목사의 설교에 이어 성만찬예식, 목사안수 후보자 영상 소개, 안수례 및 공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정익 목사는 "제자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좇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헌신적으로 사역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서울신대 목장군 총장이 목사안수를 축하한 후 교단 전총회장 이종태 목사의 축도로 모 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안수받은 13명의 목사들은 "거룩한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주의 일꾼으로 사역할 것"을 다짐했다.

현재 지방마다 작게는 1명에서 평균 3~4명이 안수를 받고 있으며 13명 목사안수는 올해 전국 43개 지방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한 번에 안수를 받은 것이다.

충서중앙, 3명 안수



충서중앙지방회(지방회장 서부성 목사)도 지난 4월 12일 예산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갖고 목사안수례를 베풀었다.

지방회 임원과 안수자 가족, 교회성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안수식에서는 김신태(예산교회) 김중현(당진중앙교회) 제덕현(음리교회) 씨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날 새로 안수받은 신임목사들은 "절대 소명에 종신토

록 헌신하며 세상의 악한 풍습과 부덕한 생활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성직자의 긍지를 가지고 청빈 경건 생활로 본이 되겠다"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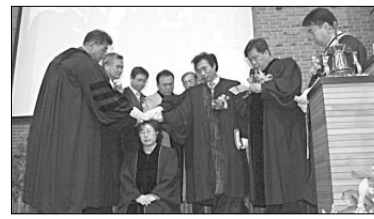
이날 안수식은 지방회 부회장 유성재 목사의 집례로 지방회장 서부성 목사의 설교, 성만찬과 안수식, 황우범 목사(예산교회 명예)의 축주문했으며, 김호덕(근원교회), 송대웅(남대전교회), 정형교 목사(정림교회) 등도 첫 발을 내딛는 신임 목사들을 축복했다. 또한 대전중앙동서지방 사모합창단과 대광교회 헌드벨찬양단의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인천남, 5명 안수



인천남지방회(지방회장 이광우 목사)는 지난 4월 15일 신일교회에서 목사안수식을 갖고 5명에게 목사안수를 했다.

인천중앙, 3명 안수



인천중앙지방회(지방회장 김사승 목사)도 지난 4월 15일 성암교회에서 목사안수식을 갖고 3명에게 목

사안수례를 베풀었다.

부회장 신남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안수식은 부회장 김용선 장로의 기도와 지방회장 김사승 목사의 설교에 이어 안수식이 진행되었다. 김사승 목사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될 것"을 강조했다며, 임직자를 소개하는 동영상 상영과 서약 후 안수례가 진행되었다.

이날 안수식에서는 성상현(새순교회) 이덕영(목민교회) 차명희(십정교회)씨 목사가 됐다. "예수님의 손과 발, 마음이 되어 맡겨 주신 주의 길을 겸손히 가겠다"고 다짐했다.

축하의 시간에는 정삼열 임석빈 가중현, 조만 목사 등이 권면과 축사 등을 전했다. 서병대 목사(새인천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전주, 3명 안수



전주지방회(지방회장 김재근 목

봄맞이 새 생명 축제 한창

노방전도와 금식기도 유명한 초청 등 다채

교단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개 교회마다 새로운 부흥과 전도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활주일을 전후로 총동원주일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총력전도주간으로 삼고 있는 본 교단에서는 이 기간 동안 총동원 주일 행사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 고난과 부활절 주간에 불신자들에게 영적인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개 교회들은 한두달 전에 태신자를 작성하고 집중적인 전도와 기도로 준비한 후에 전도대상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총동원 주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지방 수정교회(조일태 목사)는 지난 4월 1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이웃초청주일을 실시, 기존 성도와 교회학교를 포함해 총 745명이 교회를 찾았다. 지난 3월 4일부터 예배인원 1만 명을 목표로 시작된 전도운동은 '어머요!'란 구호 아래 각 기관과 교구별로 진행되었다. 각 기관과 구역의 목표를 설정한 후 매일 각 교구별로 전도용품과 전도지를 갖고 새로 입주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도를 벌였으며, 1일 금식기도와 24시간 릴레이 기도도 병행해 풍성한 결실을 거뒀다.

서울동지방 천호교회(여성삼 목사)도 지난 2월 25일 한 영혼 전도대회를 선포한 후 4월 15일 총동원주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태신자 전도활동을 벌였다. 총동원주일에

앞서 2차에 걸쳐 태신자를 작성하고 태신자 중보기도 이틀카드 부착과 초청장과 선물 발송, 태신자를 위한 전교우 한끼 금식, 태신자 해산을 위한 기도회 등 태신자 전도를 위해 전교인이 헌신했다. 그리고 전 교인 전도 교육과 기관별 전도 훈련을 실시했으며, 유태영 박사, 개그맨 배영만 씨 등 유명인들의 간증집회를 여는 등 전도에 총력을 기울였다.

만리교회(이형로 목사)는 지난 8일 부활절 총동원주일을 실시했다. 이번 총동원 주일에는 총 1968명이 교회를 찾았으며, 이중 168명이 처음 교회에 나왔다. 총동원주일을 위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각 교구별로 노방전도를 벌였다. 10개 교구가 나서 공덕동과 만리동, 효창동 일대에서 전도지와 초청장, 선물을 나눠주며 집중적인 전도활동을 했으며, 4월 첫 주간에 전교인 비전 새벽기도회, 부활절 새벽 온 가족 촛불예배를 통해 태신자를 위해 기도했다. 또 행사 당일 아침에는 태신자들에게 부활절 카드와 계란을 전하기도 했으며, 김정택 장로 초청 간증집회도 열었다.

대전 충일교회(이준중 목사)도 지난 4월 15일 총동원행사를 가졌다. 2월 초부터 4월 5일까지 노방전도활동을 벌이며 총동원주일을 준비해온 충일교회는 이날 유명 가수 출신 김중찬 씨 초청 간증집회를 열었다.

사는 지난 4월 15일 남전주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갖고 김대성(하남교회) 최현(남전주교회) 이동근(태흥교회) 씨에게 목사안수를 베풀었다.

이날 예식은 정병운 목사의 사회로 신순조 목사의 기도, 김재근 목사의 설교, 성만찬, 안수례, 박훈용 원팔연 전병일 목사의 축사, 김필수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근 목사는 "목사는 단순한 직업이 절대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결을 수 있는 영광스런 십자가의 길"이라며 "예수사랑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붙잡고 성결복음에 앞장서는 목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안수위원으로 김재근 신순조 양승기 목사 등 6명이 참여했으며, 안수자에게는 성경과 헌법, 메달이 전달됐다.

서울북, 9명 안수

서울북지방회(지방회장 진인호 목사)는 지난 4월 16일 수유리교회에서 목사안수 예식을 갖고 9명의 대상자에게 안수식을 거행했다.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안수식은 지방회장 진인호 목사의 사회로 지방회 부회장 박정규 장로



의 기도, 백종운 목사의 설교, 성찬예식, 목사안수례, 민홍식 김중만 목사의 축사, 미영출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백종운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부름 받은 것이며, 성령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며 "따로 세움 받은 성직자로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성령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수위원으로 김희택 유동인 임희창 최종국 원로목사 등 11명이 나서 성만찬 후 안수식을 거행했으며, 성의를 입히고 스톨을 건네는 예식을 진행했다.

이날 공기홍(즐거운교회) 김민호(갈갈교회) 김용태(성민교회) 박한규(본교회) 백광수(중부교회) 심현택(도봉산교회) 오승택(호원교회) 전영욱(월광교회) 전재국(누리마루교회) 씨가 안수를 받았으며, 첫 안수기도를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에게 베풀어 안수자와 친지들이 모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취재부



일산 교봉교회(이만진 목사)는 오이코스 관계 전도를 위해 부활주일날 태신자 310명에게 꽃을 보냈다. 한달 전부터 태신자를 작성하고 기도하고 있는 교봉교회는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꽃화분을 부활절 선물로 보내 호응을 얻었다.

송현교회(조광성 목사)는 지난 4월 18일 총동원주일 행사를 실시했다. 주일날이 아닌 수요일 저녁에 전도행사를 가진 것이 눈길을 끌었다. 총동원주일을 평일 저녁에 실시하는 것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도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송현교회는 VIP를 작성하고 전도와 기도에 매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이영표 선수를 전도한 사람으로 알려진 박예숙 집사를 강사로 내세웠다.

이밖에 증가교회(이정복 목사)와 부여중앙교회(윤학희 목사)도 지난 8일 전교인총회주일에 태신자 생명 축제를 가지는 등 많은 교회가 이 기간동안 전도행사를 가졌다.

황승영

신일수 목사 부흥성회(2007년 전반기)



강사 신일수 목사
· 잠실할렐루야교회 담임
· 권민관 교단선교사
· 목회학 박사
· 국민일보부흥사회의 실무위원장
· 국제정보기독교선교센터 원장
· 오직예수선교회의 대표회장
011-312-7597

- 1 시라 정애자가 눈을 뜨고, 암 환자가 고침 받고, 중풍병자가 걷고 뛰며, 심장병, 뇌졸중, 신장병, 위암, 요도결석, 디스크, 관절염, 치아교정, 아토피피부병, 치질 등이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있습니다.
- 2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천신내체육관, 제주시민회관, 오산리 순복음교회 기도원, 실순수양관 및 개교회 성회를 통해서 놀라운 회개, 신유, 치사량 회복, 성전이전, 성전건축 등 축복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3 부흥회를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건축이 불가능한 교회가 건축을 하게되고, 온전한 심일조 및 믿음의 심일조를 전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교회자정이 높아지는 [오직부흥 축복성회]입니다.

초청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예수!

Table with columns for dates and church names, listing various churches participating in the revival meeting.

태안 안면도 방포해수욕장 문화촌교회 수양관 이용안내

문화촌교회 수양관은 안면도 중심지에 자리 잡은 방포 해수욕장이 앞에 있고 안면도만의 소나무로 유명한 안면송이 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양관은 시끄럽고 복잡한 민박이나 펜션과 또다른 조용하고 맑은 공기 속에서 가족간에 또는 소그룹 성도들이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 시설안내
- 예배실(최대 200명이 이용가능하고 바닥은 난방시설로 취침가능)
- 숙소(1층 10인실 2개, 3인실 2개, 2층 10인실 1개)
- 식당(25평)



- 이용안내
- 시설 이용 문의 및 예약 전화 02)379-2311~2(문화촌교회)
- 주소: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안리 1336-15번지 서해안고속도로→홍성I.C→부석A.B지구→원창성거리→안면도→방포해수욕장→바보성펜션→문화촌교회 수양관

